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 우리의業을 돌아보자

세상이 어두울수록 발심하고 수행하자

“우리사회가 병들었음을 정직하게 자각해야... 남의 일 아니다”

참담하다. 그의 말대로, “무슨 인생이 이 모양이지?”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의 심연에는 어떤 어두운 힘이 도사리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와 폭력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 옛되고 여러 보이는 얼굴이 어찌면 이렇게 참혹하게 일그러질 수가 있을까?
 방송국에 보냈다는 그의 비디오와 사진을 보고 있자니, 사회를 향해 도발해대는 그 젊은 얼굴은 이미 영혼의 상처를 시퍼렇게 명들어서 차마 인간의 얼굴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아무리 친구가 없는 극단적인 외톨이었다지만, 적어도 부모와 누나는 있었지 않은가? 하지만 그 최소한의 가족적 유대마저 ‘이스라엘

엑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 미국이니 한국이니 가릴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한 것인가!
 이번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엄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23살의 여느 한인 15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메리카인, 아시아인, 유럽인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은밀히 분노와 증오의 씨앗을 키우지 않은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 세계화로 통합된 지구촌에서 거대한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쫓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 과학기술문명이 만들어낸 각박한 세상살이는 우리 사회를 스트레스의 용광로로 변화시킨 지 이미 오래이지 않은가? 눈명아처럼 불어나는 이 끔찍한 공업(工業)의

수레바퀴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엄중한 경고이다. 우리는 결핵처럼 사회병리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전방 총기사건이나 연쇄살인사건이 재 아물기도 전에 다시 풀어진 이번 통증을 또 외면한다면, 우리의 병은 만성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잘 생각해 보면, 피눈물 나는 통증을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통증이 없다면 몸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역



조계사(주지 원담)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희생당한 32인과 가해자 조승희씨의 넋을 추모하는 천도의식을 4월 20일 대웅전에서 봉행한 후 앞마당에 희생자 33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등을 달았다.

설적이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아픈 줄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밝혀놓은 바와 같이,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간직하고 있다. 사회라는 유기체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건은 집단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업(業)을 돌아보게 한다. 특별한 아픔을 주는 만큼, 각자 스스로 처한 처지를 더욱 자성하게 된다. “세상에! 애만 중생들 손에 자유롭게 총을 쥐어주다니!” 처음엔 2억 자루가 넘는 총기가 돌아다니는 미국 사회에 한정해 혀를 찼으나, 이 땅을 돌아보니 오십보 백보다. 더군다나 휴전선 바로 너머 또 한 명의 중생 손에 핵무기까지 들려있지 않은가!
 우리의 원호나 육조혜능 대사처럼 티베트인들이 끔찍이 사랑하는 히말라야의 성자 밀라레파 이야기

는 이번 참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하는지를 암시한다. 부호였던 아버지는 죽으면서 어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맡아 달라며 당숙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을 가로채고 밀라레파의 가족을 총쳐버려 부리며 학대했다. 모진 가난과 배신의 아픔을 견디다 못해 밀라레파의 어머니는 청년이 된 아들에게 흑마술을 배워 당숙에게 복수할 것을 명한다.
 흑독한 수련 끝에 밀라레파는 결혼식을 거행하는 당숙의 집을 무너뜨려 일가친척 35명을 몰살시킨다. 도망친 그는 피 묻은 손을 한탄했으나, 이미 일은 저질러진 후였다. 그때 그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졌을 자신, 즉 엄청난 인과응보의 법칙이었다. 처절한 절망과 고통 속에

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살아생전에 해탈을 이루는 즉신성취(卽身成就)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믿음만한 스승을 찾아 수행을 시작했지만, 모진 업장으로 인해 수행은 뒷걸음만 질뿐이었다. 이때 그가 겪은 고생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고생은 결국 그를 티베트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자의 반열로 올려주었다. 아 이러니컬하게도 살인의 중죄가 그를 성불의 길로 이끈 강력한 동인이 된 것이다.
 이번 총기사건은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정한 능부는 집조가 무성한 곳을 보면 감수하는 법이다. 그만큼 기쁜 땅임을 알기 때문이다. 피폐해진 현대인의 마음은 역설적

으로 강렬히 피안을 갈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엔 또 하나의 ‘외톨이’가 포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무명에 덮여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뉴스 속 화면은 한 청년을 대종살인범으로 만든 무명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남의 일이 아니다. 엄숙히 자신의 무지를 돌아볼 일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정한 발심을 해야 한다. 어두울수록 수행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하면, 옆에서도 따라하게 되어있다. 더더 보이지만, 수행하는 사회야말로 집단병리를 치료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모든 게 마음씀씀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김홍근
 성원문화재단 연구실장

I Love Buddha / 변화의 가능성 ①



“충격·슬픔... 생명과 사랑의 가치 되새기자”

조계·태고·천태종,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 희생자 애도문 발표

조계 태고 천태종이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희생자를 애도하는 글을 4월 18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명의의 애도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부상자와 유가족, 그리고 심한 충격과 슬픔에 빠진 미국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생명경시 풍조와 인간성 상실은 우리 모두에게 각성과 참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서와 나눔으로 서로를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지관 스님은 애도문을 미국 대사관 대사에게 서한으로 전달할 것과 뉴욕사담연합회에 희생

자들에게 대한 천도제 추진을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윤산)은 애도문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유가족과 미국국민들에게도 마음 깊이 애도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이어 “사람들이 세상에 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원망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회적 노력을 기

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도 애도문에서 “이번 사건이 세계인들에게 생명의 존귀함과 살인과 테러 등 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4월 20일 위로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서 울 화계사(주지 수경)는 4월 22일 대적광전에서 미국 버지니아대 총기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도제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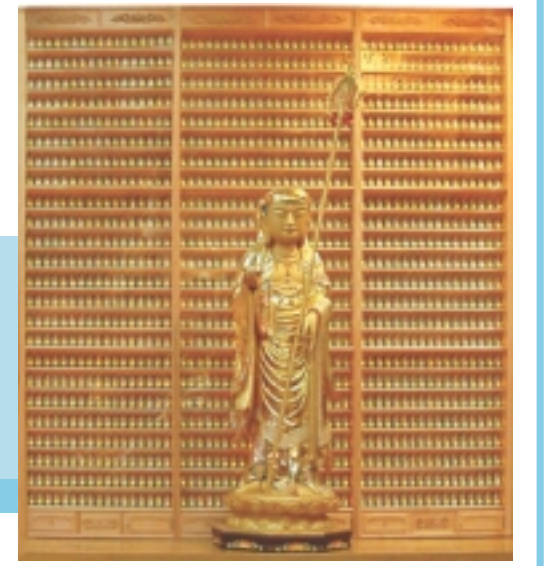
김원우·남동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월호 스님 ‘민음은 실천속에 핀다’
 5월 2일 오후 7시 광주 KT센터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